



<5부> '귀농' 꿈을 이룬 사람들

② 친환경 쌈채소 재배 정태진씨

검도관 점고 유기농 쌈채소로 3년만에 억대농 변신



상싱 웰빙농장 정태진 대표가 하우스내에서 유기농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3년전 귀농한 정태진씨는 쌈채소 재배에 '키티ن 미생물 농법'을 도입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정영기(66)·정태진(36)씨는 광주시 광산구 광산동에서 쌈채소 농사를 짓는 '부자(父子) 농사꾼'이다. 관행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던 아버지와 3년전 귀농한 젊은 아들이 손을 잡고 쌈 채소에 친환경 농법을 도입,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역대 수입을 올리는 '부자(父子) 농사꾼'으로 변모했다.

지난 2010년 광주시 북구 양산동에서 검도도장을 운영하던 태진 씨는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귀농을 결심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운동 겸 취미로 시작한 검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도장 문을 연지 6년 만이었다.

귀농 후 유기농 쌈채소 본격 시작=도장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아버지 일을 거들어 주곤 했던 태진 씨는 귀농이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유기농 쌈 채소'에 승부수를 띄웠다.

"쌈 채소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상추의 경우 재배·수확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지만 소비가 늘면 판로를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진 씨가 가족과 함께 귀농했을 때 아버지는 벼농사 외에 아들의 권유에 따라 500여평 규모의 쌈 채소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귀농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태진 씨는 '상싱 웰빙농장'(singsingfarm.com) 대표로 변신했다.

쌈 채소 재배규모도 9910㎡(3000평)으로

늘었다. 990㎡(300평) 규모 비닐하우스 10동에서 케일·적겨자·청로메인·금강초·당귀·신선초·적근대·곰취·적바우 등 쌈채소 30여 종을 재배하고 있다. 요즘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해충발생이 많아져 재배품목을 17종으로 줄였다.

매일 쌈 채소를 수확해 60% 정도를 광주농협과 광주원에 농업 공판장을 통해 출하하고, 나머지 40%는 식당 납품과 인터넷·전화로 주문한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한다. 특

임곡농협 농업인 대학서 키티ن 미생물 농법 배워

비닐하우스 10동에 케일 등 재배...작년 2억 소득

히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판장으로 보낼 쌈 채소는 새벽에 작업하고, 택배로 보낼 물량은 오후 5시경에 수확한다.

하루 평균 주문량은 30~40kg, 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입소문을 타고 서울·경기 등지 식당에서 주로 주문을 한다.

인기 비결에 대해 정 대표는 "향이 독특해 입맛을 돋우고, 저장기간이 오래가며, 양도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키티ن 미생물 농법 활용해 무농약 재배=정 대표가 귀농 후 유기농 쌈 채소 재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안정하기까지 임곡농협

(조합장 박경수)이 운영하는 '농업인 대학'이 큰 도움이 됐다.

임곡농협과 전남대 친환경농업 연구소가 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개설한 '농업인 대학'은 미생물·액비·퇴비 자가 제조법 등을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4월 교육을 통해 만난 김길용(52)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를 '은사(恩師)'라고 표현한다. 유기농업을 열망하던 정 대표는 김 교수가 개발한 '킬라

틴-키티분해 미생물 농법'(이하 키티 미생물농법)을 이용해 꿈에 다다갈 수 있었고, 마침내 올 3월에는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키티 미생물 농법은 게 겹집에 미생물을 넣어 특정 환경과 조건을 맞춰 키티 분해균만을 기하급수적으로 배양시켜 활용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병충해 방제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키티 미생물농법을 이용해 보니 수확량이 늘고, 땅심도 좋아졌습니다. 30년 이상 농사지은 밭도 연작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

다. 벼 잎마름병도 조금 번지다 말 정도로 효과를 봤습니다."

쌈 채소 재배에 키티 미생물 농법을 도입한 결과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난해는 2억원의 총매출을 올렸다. 공판장에서 타지역보다 2000~3000원가량 많은 2kg 한 상자에 1만8000원을 받을 정도로 최고 품질의 쌈 채소로 인정받은 것이다.

정 대표는 키티 미생물 농법을 쌈 채소 뿐만 아니라 벼농사에도 활용하고 있다. 직접 농사짓는 13만2200㎡(4만평)과 관리를 해 주는 6만6100㎡(2만평)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정 대표는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적극 이용해 소비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카페(cafe.daum.net/tj0326) 이용자 후기에서 한 소비자는 '보약보다 더 좋은 쌈 채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값 부담 때문에 정 대표는 재배규모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지를 고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귀농 후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니가 주위에서 많이 도와줬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쌈채류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전남 시·군 '귀농·귀촌 상담센터' 개설

계획 수립부터 정착까지 '함께'

전남도는 지난 5월 올해 귀농·귀촌 2000가구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센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전남도 지원사업과 농촌 정착 성공 요령, 고소득 작목 추천 등 귀농계획 수립부터 정착단계까지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군 귀농센터와 연계해 귀농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한다.

전남지역 귀농인구는 지난 2007년 257가구, 2008년 289가구, 2009년 549가구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 귀농해 정착한 도시민은 총 1521가구(3620명)에 이른다. 이는 2010년 귀농인(768가구)보다 102%가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장흥군이 188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흥·영암·강진·완도·해남이 각각 100가구 이상을 유지했다.

도는 오는 2014년까지 귀농 1만가구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귀농인 유치가 농촌 인구를 늘리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식하고 유치목표 설정과 함께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농가주택 수리비와 정착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참조>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인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토지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귀농초기 정착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생활비가 도시에서 거주할 때보다 40% 이상 절감되기 때문"이라며 "귀농인에게 필요한 주택 및 농지 매입 알선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귀농인이 전남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 시·군별 귀농 지원사업

Table with 6 columns: 시·군, 분야, 사업량, 사업비, 지원, 내용. Lists support programs for various counties like Suncheon, Naju, Doryang, Goseong, Gohyeon, Gwangju, Hwasun, Jeongeup, Gwangju, Haenam, Yeosu, Muan, Hwangyeon, Jeonju, Jeongseong, and Yeosu.

(자료제공:전남도 농업기술원)

Advertisement for Geumsoojang Hotel & Arirang House. Features a large table of food, photos of hotel rooms and dining areas, and text promoting traditional Korean cuisine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